

청년창업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김승수 전주시장, '육육결즈' 방문... 애로사항 청취·소통 행보 이어가

전주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기(氣) 살리기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기업인 (주)육육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기업 기 살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주)육육결즈는 25세의 여성 CEO 박에나 대표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로, 회원수가 80만을 돌파했다. 연매출은 500억 원에 달하며, 해외수출까지 준비 중인 온라인 쇼핑몰계의 강자로 전주를 대표하는 청년창업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현황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왔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사무식을 생략하고 기업 현장방문과 함께 현장 시정인 기업지원사무소에서 기 살리기 및 지원방안 회의를 갖는 것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기업인 (주)육육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으로 새해 첫 업무를 대신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에 힘써왔다.

그 결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 예산을 지난해보다 10배 늘렸다.

또,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앙부처에 방문 건의하는 등 소통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기 살리기 현장방문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뚫지 못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A중소기업은 전주시의 도움으로 5억 원 상당의 연무방제기 제품을 납품하고, 질 좋은 쌀과 잡곡 등을 판매하는 B사회적기업은 전주시청 구내식당에 납품하면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과 수출, 인력, 판로확보, 경영, 환경개선 등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처리해주면서, 중소기업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청년이 창업

한 기업이 어느덧 전국을 강타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전주시가 기업이란 단계를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다"며 "지역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기를 살려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서러라면 불법만 아니면 뭐든지 해결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서학예술마을 마을재생대학' 수료식

60여명 3개팀 프로젝트 발표

전주시가 서학동예술촌 주민들을 미래유산 제1호 사업을 주도해나갈 마을전문가로 키워내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7일 서서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 5월 26일부터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해온 '서학예술마을 마을재생대학'의 수료식을 가졌다.

마을재생대학은 누구보다도 마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재생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참여한 주민 60여명은 12주 동안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교육과 선진 사례지 답사 등을 통해 주제별 3개팀을 구성하고 해당분야 전문가,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날 수료식은 팀별로 추진해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상과 지역자력형 주거재생팀, 문화예술 활성화팀, 마을공동체 비즈니스팀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3개팀 수강생들에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전주시 사회조사'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까지 30일 동안 총 2000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전북도·전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시민의식, 사회적 관심사 등을 조사하고 삶의 질적 수준, 사회상태 변화를 파악해 정책 수립 및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100개 조사구(2,000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사전에 선정된 각 부문별 조사항목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자체 내용검토 및 분석을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오는 12월말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부문별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올해 조사에서는 총 12개 부문 중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특성 등 7개 부문, 총 69항목으로 진행된다. /인재용 기자

완산구, 자연재난 대비 영화관 안전점검

전주시 완산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자연재난 대비 영화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롯데시네마 서신점, CGV 효자점, 메가박스 고사점 등 8개소에 대해 공무원 3명, 완산소방서 2

명 등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 관리상태,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행 여부 및 소방시설상태,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스 안전관리상태, 대피통로 확보 여부 등 안전에 관해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인재용 기자

구청 로비에 '덕진 갤러리 36.5' 개관

전주시 덕진구 청사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커피숍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제공된다.

전주시 덕진구는 17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사 1층 로비에 조성한 '덕진 갤러리 36.5'의 개관식을 가졌다.

'덕진 갤러리 36.5'는 청사 로비 공간을 주민들이 1년 365일 일상 속에서 쉽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것으로, 관공서 특유의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

기에서 벗어나 36.5°C의 따뜻함으로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덕진구는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1일간 첫 번째 전시회인 '수채화 동호회 미완성 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채화 동호회 미완성'의 회원 김수영,박민정,이소영,이영수,최효은 씨가 참여해 물빛으로 담아낸 청량하고 맑은 수채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풍경화 및 정

물화 등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덕진구는 이번 초대전을 계기로 덕진 갤러리의 전시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게시도록 해 시민과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문화·예술 정보공유의 장(場)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미술관에 직접 찾지 않아도 일상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문화특별시 지정을 추진하는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과시할 예정이다.

9월 6일까지 첫 번째 전시회 '수채화 동호회 미완성 초대전'

특히 덕진구는 이번 초대전 이후 우체국 역사 및 예쁜 우편한 사진전, 하늘에서 본 전주시 50년 변천사, 2017 도시갤러리 전주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작품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향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선정해 도시 갤러리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덕진 갤러리 36.5'에 방문하셔서 예술작품 감상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건축설계사에 특혜 제공 의혹 군산시 공무원 2명 불구속입건

특정 건축설계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있는 군산시 공무원 2명이 입건됐다.

17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산시 해양수산과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4억원이 투입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건축설계사에게 맡기는 등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건축설계사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무주경찰서, 면사무소 현관문 부순 전 마을 이장 불구속입건

무주경찰서는 17일 공용물손괴 혐의로 전 마을 이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5분경 술에 취해 무주군 한 면사무소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장으로 지낼 동안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나를 서운하게 해 집을 가다가 화기에 그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올해 초에 임기가 다 돼 마을 이장직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와 면사무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